

여수시,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 원 지원

온라인 12일부터·현장 14일부터 접수 내달 14일부터 은행 선불카드로 지급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생산운영 실적 이 있고,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화훼재배농가, 학

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납품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대상이다.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출하실적 확인서 등 매출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바우처 누리집(https://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현장접수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5월 14일부터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간 종료 후 잔액은 전액 소멸됨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거래는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신청 초기 많은 농어

민이 일시에 읍면동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영농지원 바우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립 지원 바우처 등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다만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는 중복 지급된다. /이문석기자

광양시, 북스타트 사업 실시 48개월 이하 영유아 400명 대상

광양시가 올해 48개월 이하 영유아 400명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추진한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영유아에게 생애 첫 책을 선물하고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스타트코리아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펼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이자 4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계적인 프로그램이다. 시는 지난 2009년 북스타트 사업을 시작해 2020년까지 총 1만4천 850명의 아이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영유아 독서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400명분의 책 꾸러미를 제작해 희망도서관과 중마도서관에서 신생아부터 48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책 꾸러미는 연령에 맞는 단계별

그림책 2권과 북스타트 가방, 가이드북으로 구성됐다. 꾸러미를 원하는 이는 광양시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와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도서관을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와 도서관 자료실에 비치돼 있다. 시는 부모와 아이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가정 내 책 읽는 문화 확산을 돕기 위해 책 놀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북스타트 단계별로 상반기에는 중마도서관, 하반기는 희망도서관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 아동심리상담가 정유진 작가를 시작으로 △아이 훈육법 △유튜브 활용 영어학습법 △책 육아의 힘 △발달단계별 언어자극법 등 4회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부모교육도 진행한다. /오승택기자

곡성, 원예산업 평가 2년연속 최고 A등급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통합마케팅 조직 산지유통활성화자금 30억 원(무이자 융자) 지원과 함께 산지 관련 사업 우선 선정의 기회를 얻게 됐다. 원예산업종합계획은 원예농산물 생산능가를 위해 조직화되고 규모화된 산지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생산유통 종합육성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9개 지자체 등 141개소가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3개 분야(생산, 유통, 이행 노력) 10개 핵심항목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 지표는 총 5단계로(A~E) 평가가 이뤄졌다. 곡성군은 원예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실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에 참여한 농가에게 유통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통합마케팅 조직에는 농협경제지주 곡성군 연합사업단을 주축으로 지역 내 4개 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멜론, 딸기, 토란 등 원예농산물에 대해 170억 원의 취급 실적을 달성했다. /심선섭기자



순천시는 지난 5일부터 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수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승강장 의사, 버스정보안내기 등 시민들의 접촉이 잦은 시설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코로나 대응 대중교통 긴급 방역

시내버스 승강장 방역실시 및 택시 소독부스 운영

순천시(시장 허석)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 승강장 및 택시 등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5일부터 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수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

스 승강장 의사, 버스정보안내기 등 시민들의 접촉이 잦은 시설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시내버스 및 택시 회사에서도 승객의 안전을 위해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순천역에서는 봉사단체인 순천모범운전자회를 중심으로 택시 소독부스를 운영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승택기자

시는 작년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도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신속한 방역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승택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실과장 정책토론회 개최

구례군 핵심현안 전남도 및 정부 반영 노력

구례군은 지난 5일 김순호 군수 주재로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난 1일 김영록 도지사의 도민과의 대화 후속조치 등 군의 중점현안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도민과의 대화 시 나온 건의사항들을 정리해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 제2회 군 추경, 75세 이상 백신접종 준비 철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비 등 현안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전남도와 정부의 공모사업 및 보조사업 예산순기를 감안, 시기를 놓치지 말고 예산확보 활동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고, 마을별로 시행되

고 있는 사업들은 세부내용을 사전에 이장에게 충분히 전파해 이해와 협조를 통해 지역 숙원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할 것도 지시했다. 건의 사업 중에는 생명, 치유, 힐링을 융합한 전남도의 “웰 에이징 휴먼 헬스케어 밸리”조성사업에 도가 아이쿱의 3단지 사업계획 참여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이같은 굵직한 현안들이 도와 정부계획에 반영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실과장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누수되지 않고 적기 추진되도록 해주기바란다”고 말했다. /심건식기자

ex 한국도로공사

틀린그림 찾기

안전띠는 생명선입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